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수로 보는 기술인력 공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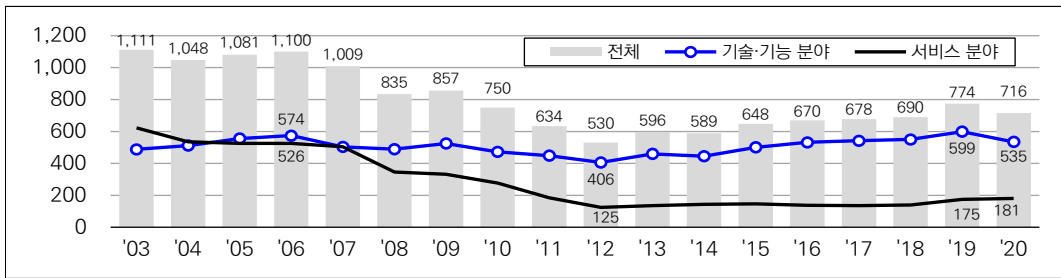
- 자격증은 학력과 더불어 구직자의 기술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임. 본고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신규 취득자 수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인력 공급 추이를 간접적으로 살펴봄.
- 국가기술자격증¹⁾ 신규 취득자 수 추이(그림 1)를 보면 전체 취득자 수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히 하락한 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200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추세적 감소는 서비스 분야 중 워드프로세서 등 기초사무 관련 자격증 취득자 수가 크게 감소한 데서 주로 비롯됨. 컴퓨터활용능력 3급과 워드프로세서 2~3급은 신규 취득자 수가 2003년 452천 명→2006년 312천 명→2011년 59천 명으로 빠르게 줄어들면서 결국 2012년에 폐지됨. 이는 IT기기의 보급과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기초사무 자격증의 효용성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됨.²⁾
 - 반면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신규 취득자 수는 2012년 이후 증가하고 있고 매년 약 40~60만 명 사이를 꾸준히 유지함. 기술·기능 자격증 소지자의 공급은 사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편임.
 - 기술·기능 분야는 2012년 이후 증가 추세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교육 및 시험 여건이 악화되고 대면 업종 기술인력 수요도 감소하면서 신규 취득자 수가 2019년보다 감소함.
- 자격증 신규 취득자 수 추이는 자격증 분야와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그림 2 참조).
 - 기술·기능 자격증은 청년층에서는 추세가 엇갈리지만 중·장년층은 취득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19세 이하의 학령인구의 감소로 2000년대부터 취득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20대는 2012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짐. 40~50대는 기술·기능 자격 취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60세 이상의 고령층 신규 취득자도 빠르게 늘어남.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2020년에도 50대 이상 신규 취득자 수는 증가함.

1) 국가기술자격증은 현장에서 수행되는 직무 내용에 따라 기술·기능과 서비스 분야로 나뉨. 기술·기능 분야는 기계, 전기, 전자, 통신, 이·미용, 조리 등의 직무분야가 포함되고 서비스 분야는 주로 전문사무 관련 직무분야가 포함됨.
2) 2012년부터 단일등급으로 변경된 워드프로세서 1급 역시 신규 취득자 수는 2003년 97천 명→2011년 45천 명→2020년 23천 명으로 꾸준히 감소함.

- 2000년대 중반에 나타난 서비스 분야 자격증 신규 취득자 수 감소는 주로 19세 이하에서 워드프로세서 등 기초사무 자격증 취득자가 급격히 줄어든 데서 주로 비롯됨. 20대 신규 취득자 수도 동기간 감소하였으나 2012년 이후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 30대 이상에서는 서비스 분야 자격증 신규 취득자 수가 그리 많지 않으며 최근까지도 추이의 변화는 없음.
- 따라서 최근으로 올수록 국가기술자격증 신규 취득은 청년층의 경우 19세 이하보다 20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고령층의 기술·기능 자격증 취득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

[그림 1] 분야별 국가기술자격증 신규 취득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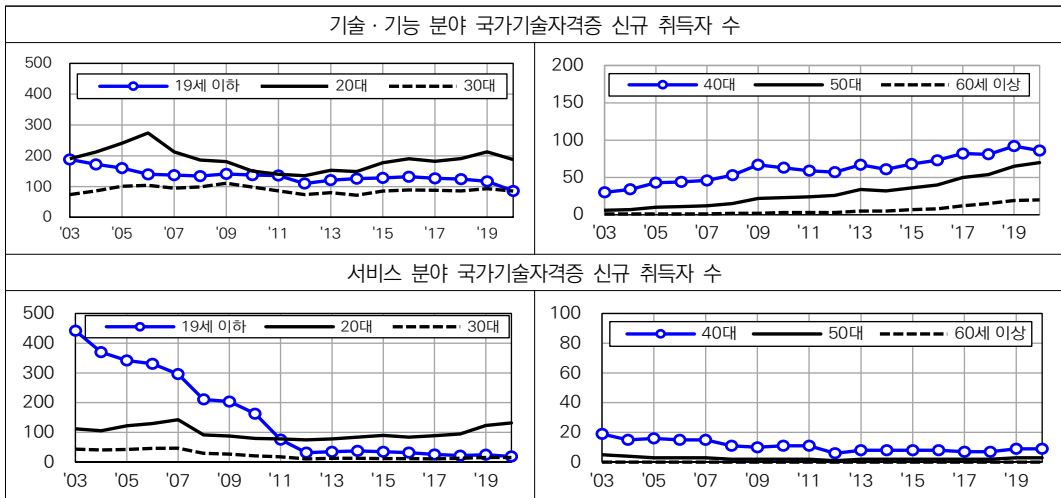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국가기술자격통계」, KOSIS.

[그림 2] 연령 및 분야별 국가기술자격증 신규 취득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국가기술자격통계」,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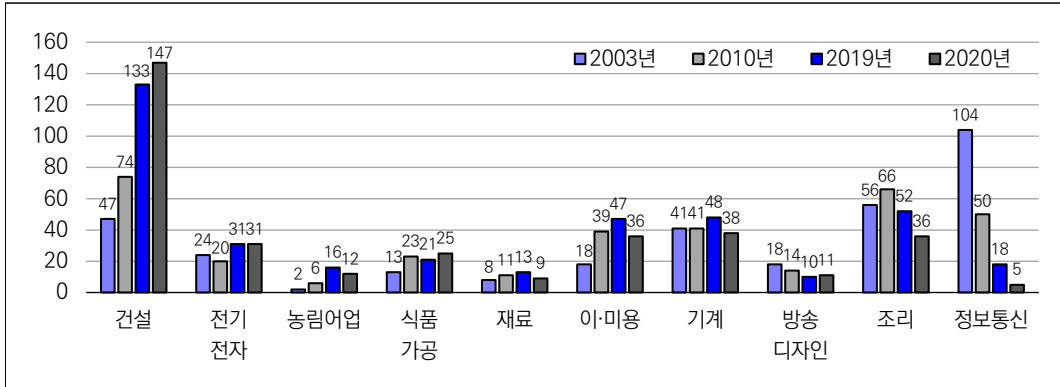
○ 기술·기능 분야 기초 등급 자격증인 기능사³⁾의 신규 취득자 수 변화를 직무분야별로 보면 건설 분야 자격증의 취득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조리 및 정보통신 분야 자격증 취득은 감소하

는 추세임(그림 3 참조).

- 2003년, 2010년, 2019년을 비교하여 장기적 변화를 보면 건설 분야 자격증 신규 취득자 수는 2003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였고 특히 2010→2019년 5만 9천 명 증가하여 최근 가장 크게 성장한 직무분야임.⁴⁾ 반면 한식과 양식 조리기능사 등이 포함된 조리 분야 및 IT와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 자격증의 취득은 과거보다 감소함.
- 코로나19로 인한 기능사 자격증의 단기적 취득 행태 변화를 2020년과 2019년의 비교를 통해 보면 이·미용 및 조리 분야에서 자격증 취득자가 1년 새 크게 감소함.⁵⁾ 이는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취업과 창업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판단됨.

[그림 3] 직무분야별 기능사 신규 취득자 수의 연도별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신규 취득자 수가 적은 섬유·의복, 안전관리, 운전·운송, 인쇄·목재·가구·공예, 채광, 환경·에너지, 화학 분야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 : 통계청, 「국가기술자격통계」, KOSIS.

- 기능사보다 더 심화된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산업기사와 기사 자격증⁶⁾ 신규 취득자 수는 2010년 이후 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직무분야에서 증가하는 추세임(그림 4 참조).
 - 초대졸 이상 학력자 수가 늘어나면서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도 증가하는 추세임.
 - 직무분야별로는 안전관리와 화학 및 전기·전자 등에서 2010년 대비 2019년에 신규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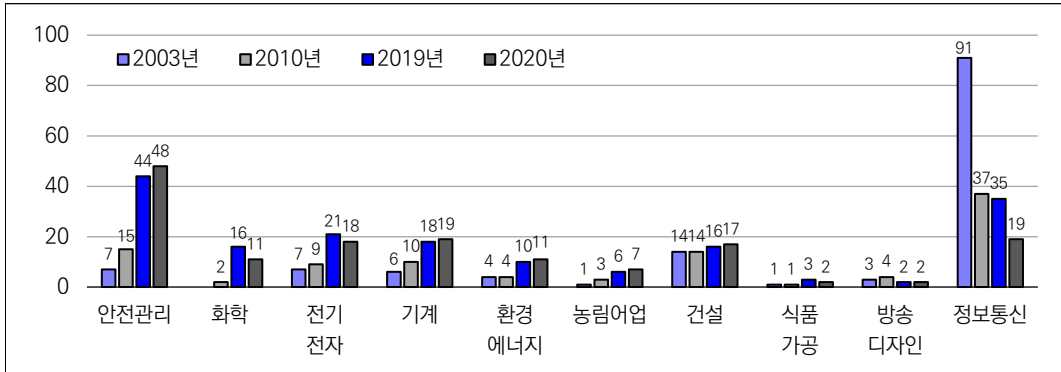
3) 기능사 자격증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4) 주로 방송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운수운물기능사 등이 포함되는 건축 분야와 굴삭기운전기능사 및 지게차운전기능사가 포함되는 건설기계운전 분야에서 신규 취득자 수가 크게 증가함.
 5) 정보통신 분야에서 신규 취득자가 2020년에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정보처리기능사 응시자 수가 2020년에 줄어든 점도 있지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 시험이 2020년에 개정되면서 실기 합격률이 하락한 영향도 존재함.
 6) 산업기사 자격증은 1) 관련 분야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2) 기능사 자격증과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혹은 3) 관련 학과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응시자격으로 함. 기사 자격증은 1) 관련 분야 4년 이상의 실무 경력, 2) 산업기사 자격증과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3) 기능사 자격증과 3년 이상의 실무 경력, 혹은 4) 관련 학과 대졸 이상의 학력을 응시자격으로 함.

자 수가 크게 증가함.) 특히 안전관련 자격증은 2010년 이후 신규 취득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에도 취득자가 더 늘어났는데, 이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규정이 점차 강화되면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됨.

- 정보통신 분야는 2000년대 초반에는 취득자 수가 가장 많은 분야였지만 2010년대에는 취득자 수가 3만 명대로 줄어듦. 2020년에는 2019년보다 취득자 수가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보다는 정보통신 분야 종목 중 하나인 정보처리기사 시험이 개정되면서 합격률이 하락했기 때문임.

[그림 4] 직무분야별 산업기사 및 기사 신규 취득자 수의 연도별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신규 취득자 수가 적은 광업자원, 섬유·의복, 운전·운송, 인쇄·목재·가구·공예, 조리, 재료, 생산관리 분야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 : 통계청, 「국가기술자격통계」, KOSIS.

○ 본고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신규 취득자 수 자료를 통해 기술인력의 공급 추이와 변화를 간접적으로 살펴봄.

- 취득자 수로 본 기술인력의 공급은 2010년대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령별로 청년층은 20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중·고령층 기술인력 공급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 직무분야별로는 건설과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인력 공급이 크게 늘어남. 정보통신 분야는 자격제도 변화로 기초 수준인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크게 감소함.
- 또한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업과 관련된 이·미용 및 음식조리 관련 기능인력의 공급도 타격을 받았음을 확인함. **KL**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7) 안전관리 분야는 종목별로 산업안전, 소방설비, 가스, 건설안전(산업)기사 등에서 신규 취득자가 과거보다 증가함. 화학 분야는 주로 위험물산업기사에서, 전기전자 분야는 주로 전기기사에서 신규 취득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함.